



제목	Tolerance and Rule of Law as a Condition for Prosperit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안암법학회
발행일	2009. 1. 31.
저자	Ahn Seong Jo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349-398
ISBN 또는 ISSN	1226-6159

**내용 요약**

이 논문은 한 국가와 사회의 번영의 조건은 법치와 관용이라는 논지를 주장한 논문이다. 저자는 에이미 추아의 역사해석에 기초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저자는 “관용은 초강대국의 핵심 조건”이며 “정치적 정체성이 없는 관용은 몰락의 씨앗”이라는 에이미 추아의 주장에 동의하는 한편, 제국 전체를 결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접착제는 시민권이 만들어낸 공동의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자는 동아시아의 중국 당나라와 일본제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법치야말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접착제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관용이란 민족, 종교, 인종, 언어 등의 배경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세계제국에서 공존하고 참여하며 번영하도록 허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저자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법치의 개념은 문자적으로는 법에 의한 통치를 가리키며 핵심적인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법치라고 할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법치의 핵심적인 요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치자는 법 아래에 있거나 적어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혹은 적어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에 기초하여 저자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초강대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페르시아 제국의 경우는 정치적, 종교적, 언어적으로 관용적이었지만 법치의 두 가지 핵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법치국가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동아시아의 중국 당나라와 일본 제국의 사례를 연구 분석한 결과, 저자는 두 나라 모두 법치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